한국 근대문학사의 한 상징

- 이태준전집을읽고

박 헌 호 | 고려대연구교수

이태준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 한 ’ 상징이다. 많은 수렁과 번뇌, 웅변과 시행착오로 얼룩진 우리 문학사는자신의지난한여정을보여주는많은상징을갖고 있다. 소설가이태준은그상징의목록에으뜸으로칠 만한자리에놓여있다. 그를설명하는글이라면으레 등장하는많은수식어들이그것을증명한다.

이태준은 ‘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완성자 (정한숙, 이재선)로,‘ 한국 현대소설사상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뚜렷한공적을남긴작가 (백철)로,‘ 비경향문학이낳은 가장 큰 작가 (임화)로 이미 평가받은 바 있다. 작가나비평가의세계관에따라평가가양극단으로치달았던우리문학사의경험을고려한다면이처럼세계관을 달리하는 여러 논자들에의해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는사실만으로도이태준의문학사적위치는자명해보인다. 게다가그는카프(KAPF)에맞서순수문학을 옹호했던 ‘ 구인회 의 좌장이었고, [조선중앙일보]의 학예부장으로 이상(李箱)이나 박태원의 문학적 후원자 노릇을 감당했으며, [문장]지를 창간하여 일제 말 암울했던 문학판을 지켜냈다. 또한 많은 장편소설을 통해춘원이광수에필적하는대중적인기를얻었으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단편에서만 찾았던 작가이며, 김동리와 같은 신세대 작가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작가로도기록되어있다.

이태준은한국근대문학사가당면해야했던근대문예미학의형성문제를단편소설의확립을통해응답했으며, 사상선택의 문제에서 양극단의 편향을 노출한 바있고, 통속성과예술성을단편과장편의선명한분리를통해예증한바있다. 또한작가정신의측면에서도 이광수에 필적할 만한 고아의식의 소유자였고, 민족주의에깊이침윤되어있었으면서해방이후에는사

회주의에 경도되었고, ‘ 조선적 정서 에 대한 자각을 통해우리입맛에맞는탁월한미적지평을개척한작가이기도하다. 마지막으로그는해방이후일대사상적 전환을 감행하여‘ 문학가동맹 의 부위원장으로 활약했고북한체제를 찬양하는여러글과작품을남겨 한국근대 문학사의 사상적 번뇌를한 몸으로보여주

었으며, 최후에는 북한 사회에서 숙청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준 작가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이태준이 마주치고, 고민하며, 시행착오를 범한 그모든문제는실로우리근대문학사의 문제이기도했다.

그러나이러한문제성에걸맞게해방이후남한문학계가 이태준을 대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단은 그를문학사에서지우게만드는데필요충분조건이었다. 그가남긴‘ 쏘련기행 이란책자는당시남한사회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며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데 상당한기여를했다고한다. 하니, 그는재빠르게잊혀져야만 했다. 영향력의 크기에 비례해 남한문학사는 그를차갑게대하지않으면안되었다. 1988년월북작가에대한해금조치가내려지기전까지그는노인들의 은밀히 떠도는 추억 속에서만 존재해야 했고, 아니면 학자들의드문연구속에서복자(覆字)의운명을감수해야했다.

사정이 이와 같으니, 비록 범인들일망정 이태준의 전집을대함에있어일말의감흥이없을수없다. 이번에 ‘ 깊은샘출판사 에서 이태준 전집(총17권)을 완간했다. 그것도1988년에1차출간했던것을, 상세한고증을거쳐판본을확정하고미처싣지못했던작품을 보충하였으며,‘ 어휘풀이 와 전문연구자의 해설을 첨가한전면수정판으로재완간했다는것은우리출판계의현실을고려할때작은사건으로기록될만하다. 특히이태준연구로 학위를 취득한전문연구자들이전집출간에대거참여한 것은 명망가 중심으로이루어지는작금의관행에비추어볼때신선한시도로보인다. 이제전집완간을계기로그의작품에대한연구와 독서가활발해지기를기대하면서이태준문학이지닌 상징성을되새겨보고자한다.

이태준은 190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다. 개화파였던 아버지는조선관리의 등살에 못 이겨가족을 이끌고 해삼위(블라디보스톡)로 망명했다가,‘ 웅기에서들어온행인에게서무슨소식을 듣고는 땅을 치고 통곡하다가병이돋혀 ([사상의월야]) 1909년8월사망하고만다. 졸지에가장을잃은가족은고향으로돌아오다가배안에서어머니가유복녀를분만하자예정

을바꿔함경북도배기미(梨津)에내려정착한다. 그러다 1912년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이태준은 아홉살의어린나이에고아가된다. 흔히이태준의자전적소설로평가하는[사상의월야]에따르면고아가된이후의 참담한 생활은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다. 갖은 고생 끝에 휘문고보에 입학하지만 교주(校主)의 횡포에저항하다제적당하고일본에건너가상지대학(上智大學)에 입학하지만‘ 공기만 먹는 생활 을 계속해야 했다. 이 무렵 1925년에 [오몽녀]를 [조선문단]에투고, 입선하여문단에데뷔한다. 가난을이기지못하고 학업을 중도포기, 귀국한뒤‘ 개벽사 에 입사하였고 1931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창작에 돌입하여, 1933년 ‘ 구인회 를 만들 무렵에는 작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38년 [문장]지를 창간할무렵에는앞에서서술한것과같은평가를받는반열에올라있었다.

이태준을논하는데빠질수없는것이단편소설의확립자라는 평가이다. 전집 1, 2권에 [달밤]과 [돌다리]라는 제목으로 엮여진 그의 단편들은 이태준 문학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자 그가 후대의 작가들에게미친 영향의 수원지이다. 그는 스스로 작가로서의 자신의가치는단편에서보아달라고부탁하기도했다.

그간쓴장편도몇있다. 그러나나는아직은이적은작품들에게더애정을느낀다. 저널리즘과의타협이없이 비교적 순수한나대로 쓴 것이이 단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내 생활에다소가치가있었다면 그가치의 화폐가 곧 이 단편들이라 해 마땅할 것이다. (단편집[가마귀]머리말, 전집2권p.15)

30년대초반이태준은당시카프계열의작품들을예술의근대적수준에미달한것으로폄하한다. 하여그는소설의근대미학을‘ 이야기 와‘ 사건 보다는‘ 문장 ’과‘ 묘사 에서찾으며새로운지평을개척해냈다. 그가저유명한[문장강화]의저자이며, 그가창간한문예지의제명이[문장]이었다는사실은이와관련이깊은것이다. 그는이것을스스로‘ 말을빼고도남는것 이라고 불렀다. 말하자면문학의묘미는정보전달의기능에국한하는언어의기능을넘어문장그자체가주는심미적경험을향유하는일이라믿었던것이다.

이러한인식에 의거, 이태준의 단편들은 한국 근대소설사의하나의경지를이루어냈다. 이태준을통해서한국의 근대소설은 언어가 언어를 뛰어넘는, 소설이 시가되는경지를개척하였다. 미시적이면서도역동적인 장면의 창출을 통해 이태준은, 사회현실과 자아의 내면이라는 전통적인 소설의 영역이 아닌 순간 속에 명멸하는불가사의한삶의국면이라는새로운영역을 개척하였다. 표현할수없는것은표현할수없는것으로 남은 채, 독자의 가슴속에만 살아있게 되었다. 이태준의단편은오늘날의안목으로보아도상당한수준을자랑할만하다. 몇몇대학의문예창작학과에서그의 작품이 단편소설의 교과서 노릇을 감당하고 있는 까닭이여기에있을것이다.

그러나그의장편은카프계열을능가하는계몽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한 작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괴리와모순은두개의근대성을동시적으로추구하고자했던, 아니동시적으로추구하도록강요한우리근대사의 파행성의 산물이다. 이태준은 당시의 장편이 신문연재소설이라는조건상통속성에빠지지않을수

없다고 강변했지만, 사실은 그는 그런 통속성을 이용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신문연재소설의 통속성을 이용하여자신의계몽의지를피력하였고, 자신이지향하는 사회의 최저 조건을 제시하였다. 장편에서 피력된 사회적근대성에의지향은단편으로는채워지지않는 그의또다른얼굴이다. 전집의대부분을차지하는장편들은한국근대문학사의특수성의상징으로새롭게 음미될필요가있다.

이번전집출간에서독자의눈을사로잡는것은전집3권과4권으로나온해방이후의저작들이다. 식민지 시대의 작품들은 당대에도 작품집으로 출간된 바 있고잡지나신문등을통해서도손쉽게구할수있었다. 그러나해방 이후에 그가 써 놓은 많은 저작물들은 시대적 상황과 이데올로기적 성향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해방전후 · 고향길](전집3권)과[소련기행 · 농토 · 먼지](전집4권)은 이러한 작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 동안 이태준 문학의 변모와 월북 이후의 여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던많은독자들의궁금증을해갈할수있게해주었다.

3권의경우해방직후그가처음으로신문에연재하다월북으로중단했던장편[불사조]를처음으로책으로묶었을뿐만아니라, 한국전쟁당시그가냈다는작품집[고향길](재일본조선인교육자동맹, 1952. 12)과 [첫전투](문화전선사, 1949. 11)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간하였다. 또한 4권에서는 앞에서 서술했던 [소련기행]과 북한의토지개혁 과정을 옹호하며자신의 정신적 거점을 확연하게 보여주었던 [농토], 그리고 최근에 김재용에 의해 발굴 소개된 [먼지]를 한데묶어해방이후이태준의사상적변신과정을확연하게 확인할수있게되었다.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이제이태준의사상적변신을‘ 공산당에게 속아서한 노릇 ’으로이해하는분위기는많이사라진듯하다. 그러나그렇다 해도 그의 변모를 여전히정치이데올로기의문제로만읽을 경우 우리는뻔한이분법적 선택 앞에서좌초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태준을한국근대문학사의상징이라할때, 그상징성의정점에는이 같은이데올로기의문제, 즉이념과문학의관계에대한우리근대사의도정이가로놓여있다. 이를어떻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문제는이념의 문제를 떠나 역사의보다 넓은 지평으로 나아가려는 폭넓은 관점 속에서이루어져야한다. 상징이란빙산의일각처럼, 날카롭되헤아릴 수없는무게를 내포하고있기에상징인 것이다.

전집의 완간으로 이태준을, 우리 근대문학사가 마땅히 지녀야 할 유산으로, 우리 근대문학사가 마땅히 지녀야할좌표로되새겨볼기회는일단마련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모든일이그러하듯이하나의매듭은 새로운 매듭의 출발지일 뿐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새로운 과제는그 유산과 좌표에대한새로운인식과 해석이며, 그것을 통일을 지향하는 오늘날 현실의 밑거름으로어떻게전용할것인가하는, 보다절박한과제일것이다.

[이태준전집]을덮으면서, 뚫릴듯뚫리지않는, 통일에대해생각한다.